

## 일부 도시 지역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

조현태

김해대학교 응급구조과

### Cognitive Degree of Drinking Evil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tudents in Urban Areas

Hyeon Tae Jo

Department of Emergency, Gimhae College

#### ABSTRACT

**Objectives:** To study about cognitive degree of drinking evil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tudents in a partial a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the 249 nursing science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used by SAS program(ver. 9.2).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was used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of objects. T-test was used in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as characteristics of object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in factors affecting on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Results:**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was low as more drinking related outlay expenses and was high as mor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experience.

**Conclusions:** Universit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onsider the serious and importance of the problem and enforc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for nursing science students and develop education program and prepare the publicity material.

**Key words:** Cognitive Degree, Drinking Evil, Nursing Science Students

---

접수일 : 2015년 6월 21일, 수정일 : 2015년 8월 6일, 채택일 : 2015년 8월 10일

교신저자 : 조현태((621-706, 경남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Tel: 055-320-1724 FAX: 055-336-6251 E-mail: jhungung@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음주가 대학생들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음주는 심각한 수준이다(서경현 등, 2009). 음주 인구 비율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특히 이 연령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 인구와 음주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김종규 등, 2011). 대학생의 음주가 특히 폭음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Wechsler, 1996), 이런 음주 형태는 건강은 물론 문제 행동을 발생시켜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그들의 미래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의 문제 음주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서경현 등, 2009). 젊은 청소년의 음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음주 사고 없는 대학 만들기’를 위한 대학 절주 동아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및 사업의 체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광기 등, 2012).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의 음주 문화와 대학생의 음주 행동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 및 학생들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생의 건강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조사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생을 위한 전국적인 건강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김영복 등, 2011). 술이 대인관계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 절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에 대한 대학 내 적극적인 음주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천성수 등, 2002). 대학생의 음주 폐해는 개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교직원, 대학이 위치한 지

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김광기 등, 2006). 대학 시절의 음주 습관은 음주가 학습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음주 교육은 꼭 필요하다(Abraham 등, 1987).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문제 음주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문제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최윤정, 2012).

의료인은 대상자의 음주 형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질병과 손상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음주 습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전병환 등, 2010). 간호 대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 대상자의 바람직한 음주 습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의료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문제 음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박형숙 등, 2011). 선행 연구에서 김영복(2014)의 우리나라 대학생의 지역별 음주 특성 분석, 서경현 등(2009)의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 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 탄력성의 역할, 이천희 등(2009)의 대학생의 음주 행동과 알코올중독의 관계, 김승수 등(2009)의 대학생 음주 실태와 문제 음주 변화 추이, 윤명숙 등(2009)의 대학생 절주 의향과 음주 환경이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 김종규 등(2011)의 일 지역 여자 대학생의 음주율 및 음주 행동 변화: 1999년과 2009년 비교, 손애리(2014)의 여대생의 음주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 최윤정(2012)의 대학생의 외적 통제 소재가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 효과, 조현태(2014)의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 행동과 그 영향 요인 등은 대학생의 음주 특성, 음주 실태, 음주 인식, 문제 음주, 음주 행동, 음주 환경, 음주 행태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간호 대학생 대상으로 한 양승희 등(2003)

의 여대생의 음주 형태,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조유향 등(2004)의 한일 간호 대학생의 음주가 생활 습관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 간호 대학생의 음주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간호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박형숙 등, 2011). 특히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에 관한 연구나 음주 폐해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를 파악하여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관련 인식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 연구 대상

G시와 B시에 있는 3,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은 국시 준비와 3년제 대학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 2) 연구기간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입력과 분석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 3. 연구도구

최은진(2008)과 천상수 등(2003)의 음주 폐해에 대한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음주 관련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음주 시 몇 차,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을 포함시켰다. 대상자의 음주 관련 인식으로는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음주 폐해 심각성 인식도, AUDIT-K(문제성 음주 자가 진단표)로 구성하였다. 음주 폐해는 음주의 판단으로 인해 생기는 해를 뜻한다. 음주로 인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폐해 인식도에는 성별, 학년, 음주 시 몇 차,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AUDIT-K를 포함시켰다.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음주 시 몇 차,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AUDIT-K를 포함시켰다.

## 4.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ver. 9.2)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음주 관련 특성과 대상자

의 음주 관련 인식은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폐해 인식도는 교차 분석과 평균 비교분석을 t-test로 하였다.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 및 음주 관련 특성

대상자인 간호 대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이 95명(38.2%), 여학생이 154명(61.8%)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29명(51.8%), 2학년이 70명(28.1%), 3학년이 50명(20.1%)으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음주 시 몇 차까지 가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1차가 25명(10.0%), 2차가 80명(32.1%), 3차 이상이 114명(45.8%)으로 3차 이상이 가장 많았다.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으로는 5만원 미만이 139명(55.8%)으로 가장 많았다.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있다’가 85명(34.1%), ‘없다’가 164명(65.9%)으로 ‘없다’가 더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음주 관련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	95	38.2
	여	154	61.8
학년	1학년	129	51.8
	2학년	70	28.1
	3학년	50	20.1
음주 시 몇 차	마시지 않음	30	12.1
	1차	25	10.0
	2차	80	32.1
	3차 이상	114	45.8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139	55.8
	5~10 미만	60	24.1
	10 이상	50	20.1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있음	85	34.1
	없음	164	65.9

#### 2. 대상자의 음주 관련 인식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학교 노력 만족도는 ‘만족’이 35명(14.1%), ‘보통’이 164명(65.9%), ‘불만족’이 50명(20.1%)으로 ‘보통’이 가장 많았다. 음주 폐

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그렇다’가 40명(16.1%), ‘그렇다’가 114명(45.8%), ‘그렇지 않다’가 40명(16.1%),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명(8.0%), ‘모르겠다’가 35명(14.1%)으로 음주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54명(61.9%)이었다(표 2).

&lt;표 2&gt; 대상자의 음주 관련 인식

특성	구분	N	%
음주 폐해 감소	만족	35	14.0
학교 노력 만족도	보통	164	65.9
	불만족	50	20.1
음주 폐해	매우 그렇다	40	16.1
심각성 인식도	그렇다	114	45.8
	그렇지 않다	40	16.1
	전혀 그렇지 않다	20	8.0
	모르겠다.	35	14.0
AUDIT-K	평균±표준편차	8.20±6.88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폐해 인식도의 차이

음주 관련 지출 비용에 따라서는 지출이 많을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낮았고( $p=0.002$ ),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을 할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높았으며( $p=0.041$ ), AUDIT-K는 음주 폐해를 인식하는

군이 미인식하는 군보다 낮았는데( $p<0.001$ ),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학년, 음주 시 몇 차까지 마시는지, 음주 폐해에 감소를 위한 학교 노력 만족도에 따른 음주 폐해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lt;표 3&gt;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 폐해 인식도의 차이

특성	구분	음주 폐해		p-valu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성별	남	60(63.2)	35(36.8)	0.738*
	여	94(61.0)	60(39.0)	
학년	1학년	79(61.2)	50(38.8)	0.057*
	2학년	50(71.4)	20(28.6)	
	3학년	25(50.0)	25(50.0)	
음주 시 몇 차	마시지 않음	20(66.7)	10(33.3)	0.177*
	1차	20(80.0)	5(20.0)	
	2차	45(56.2)	35(43.8)	
	3차 이상	69(60.5)	45(39.5)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94(67.6)	45(32.4)	0.002*
	5~10 미만	40(66.7)	20(33.3)	
	10 이상	20(40.0)	30(60.0)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있음	60(70.6)	25(29.4)	0.041*
	없음	94(57.3)	70(42.7)	

특성	구분	음주 폐해		p-valu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음주 폐해 감소	만족	20(57.1)	15(42.9)	0.389*
학교 노력 만족도	보통	99(60.4)	65(39.6)	
	불만족	35(70.0)	15(30.0)	
AUDIT-K	평균±표준편차	6.5±5.9	10.9±7.6	<0.001**

\*Chi-square test, \*\*t-test

#### 4.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는 학년, 음주 시 몇 차에서 3차 이상,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여부,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AUDIT-K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가장 컸고(p=0.012), 음주 시 몇 차에서는 3차 이상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p=0.016).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은 있음이 더 큰 요인이었다(p=0.013).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p<0.001). AUDIT-K도 큰 영향 요인이었다(p<0.001). 음주 폐해 인식도는 여학생보다 남

학생이 0.87배 낮았다. 학년은 1학년보다 2학년이 3.28배 높았으며 3학년은 0.32배 낮았다. 음주 시 몇 차에서는 마시지 않음보다 1차가 2.59배 높았고 2차가 1.92배, 3차 이상이 5.42배 높았다.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은 5만원 미만보다 5만원~10만원 미만이 0.45배 낮았고 10만 원 이상은 0.41배 낮았다.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은 '없음'보다 '있음'이 2.59배 높았다.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는 불만족보다 보통이 0.07배 낮았고 만족이 0.38배 낮았다. AUDIT-K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0.86배 감소하였다(표 4).

<표 4>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여	1.00		
	남	0.87	0.43~1.76	0.692
학년	1학년	1.00		
	2학년	3.28	1.3~8.25	0.012
	3학년	0.32	0.12~0.84	0.020
음주 시 몇 차	마시지 않음	1.00		
	1차	2.59	0.52~12.89	0.246
	2차	1.92	0.49~ 7.42	0.347
	3차 이상	5.42	1.37~21.48	0.016
월 음주 관련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1.00		
	5~10 미만	0.45	0.16~1.30	0.141
	10 이상	0.41	0.15~1.11	0.079

특성	구분	OR	95% CI	p-value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없음	1.00		
	있음	2.59	1.22~5.49	0.013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불만족	1.00		
	보통	0.07	0.02~0.27	<0.001
	만족	0.38	0.16~0.90	0.028
AUDIT-K		0.86	0.80~0.92	<0.001

#### IV.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은 문제 음주를 경험한 적이 대부분 있었고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경험은 매우 낮았다. 또 간호 대학생들은 음주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음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년별로 음주 폐해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음주 폐해가 심각했다. 반면에 음주 폐해에 대한 절주 교육 및 홍보가 부족했다. 또 대학이나 정부 당국이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아 절주 교육 및 홍보와 자료가 매우 부족했다. 음주 폐해 인식도는 술을 마시는 횟수,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유무,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학년, 성별에 따라 달랐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에서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있다'가 34.1%, '없다'가 65.9%로 간호 대학생들의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천성수 등(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있다'가 33.8%, '없다'가 66.2%였고 천성수 등(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있다'가 33.1%, '없다'가 66.9%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학과 당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절주 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에서는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학교 노력 만족도는 '만족'이 14.1%에 불과했는데 천성수 등(2003)의 16.8%, 천성수 등(2002)의 16.5%, 박형숙 등(2011)의 16.2%보다 낮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불만족한 생각을 갖고 있어 우선 대학에서의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음주 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1.9%로 학생들 스스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 관련 지출 비용에 따라서는 지출이 많을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낮았고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을 할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높았다. AUDIT-K는 음주 폐해를 미 인식하는 군이 더 높았는데 천성수 등(2003)과 천성수 등(2002), 박형숙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같았다. 음주 폐해 인식도의 차이에서는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2학년이 가장 높았는데(71.4%), 박형숙(2011)의 연구에서도 2학년이 가장 높았다(73.3%). 월 음주 지출 비용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67.6%), 천성수 등(2003)(66.8%), 박형숙(2011)(68.1%)의 연구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은 '있다'가 70.6%였는데, 천성수(2003)(71.3%), 박형숙(2011)(69.7%)의 연구에서도 '있다'가 더 많았다. 음주 폐해 감소 학교노력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70.0%로 많았는데, 천성수(2003)(71.0%), 박형숙(2011)(69.9%)의 연구에서도 불만족

이 더 많았다. 음주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는 학년, 음주 시 몇 차에서 마시지 않음보다 3차 이상,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여부,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AUDIT-K 이었는데 학년은 2학년이 가장 컸고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은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천성수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학년,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 여부,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 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가장 컸고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천성수 등(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 용돈, 음주 시 3차 이상, AUDIT-K였는데 학년은 3학년이 가장 컸고 음주 폐해 감소 학교 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간호 대학생들의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부족했고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학교 노력 만족도는 매우 낮고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대학과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절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자료 개발이 우선 시급히 필요하다.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을 할수록 음주 폐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절주 교육 및 홍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또 보건 협회 절주 동아리를 운영하여 음주 폐해에 대한 자료 개발 및 홍보 영상 상영과 설문지 조사,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대학이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절주 동아리를 통해 학생 회원과 지도 교수가 잘 운용한다면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그 운용 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매점에서의 주류 판매

를 금지시키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음주로 인한 음주 폐해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학년과 3학년, 3차 이상 술을 마시는 대학생, 절주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없는 대학생,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학교 노력 만족도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더 많은 절주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3, 4년제로 나뉘어져 있는 간호대학의 특성상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대학생들의 음주 폐해 인식도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김광기, 장승복, 제갈정. 대학생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대학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3(3):65-83.
2. 김광기, 제갈정, 이기일, 박정은. 대학교 음주 관련 정책 환경이 대학생 음주 문제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2;29(2):83-91.
3. 김영복, 신준호, 문원의, 조선진.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Healthy Campus' 모형 개발. 건강증진 연구 사업 일반 11-14. 대구: 대구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4. 김영복. 우리나라 대학생의 지역별 음주 특성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4;15(2):71-82.
5. 김종규, 김중순. 일 지역 여자 대학생의 음주율 및 음주 행동 변화: 1999년과 2009년 비교. 한국알코올과학 회지 2011;12(1):61-80.
6. 김승수, 정슬기. 대학생 음주 실태와 문제 음주 변화 추이, 2006년과 2008년 비교.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2):75-89.
7. 박형숙, 조묘현, 조규영, 김동희. 간호 대학생의 음주 실태, 음주 거부 자기효능감과 정신 건강: 정상음주군과 문제 음주군 비교. 한국간호교육



- 학회지 2011;17(1):110-119.
8. 서경현, 김성민.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 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 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2):21-34.
  9. 손애리. 여대생의 음주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4;15(2):103-110.
  10. 양승희, 한금선. 여대생의 음주 형태, 음주 관련 문제,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3;33(7):1057-1064.
  11. 윤명숙, 조혜정, 최수연. 대학생 절주 의향과 음주 환경이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2):35-50.
  12. 이천희, 김민석. 대학생의 음주 행동과 알코올 중독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1):55-64.
  13. 전병환, 노현, 김찬웅, 김성은, 이상진, 이동훈. 수련의 및 전공의의 음주 행태가 문제 음주 환자의 선별 검사, 중재 및 치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한응급의학회지 2010;21(4):495-497.
  14. 조유향, 김명순, 장홍천혜. 한일 간호 대학생의 음주가 생활 습관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4;18(2):286-298.
  15. 조현태.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 행태와 그 영향 요인. 한국 학교·지역 보건교육학회지 2014;15(2):13-22.
  16.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대학생 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3;4(2):119-135.
  17. 천성수, 송창호, 이주열, 이용표, 정재훈, 박종순, 김선경, 윤은숙. 대학생 문제 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과 평가.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2;3(1):53-86.
  18. 최윤정. 대학생의 외적 통제 소재가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 효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2;13(1):73-84.
  19. 최은진. 음주 폐해 및 인지도 조사 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31-149.
  20. Abraham, D. B. Niaura, R. S. *Social learning theory in: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1987.
  21. Wechsler, H. Alcohol and the American college campus.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96; 28:2025-2060.